

“건협인 거듭나기 운동을 통한 의식개혁”

건협 '96 직원연수교육 실시

한국건강관리협회는 '96년도 직원 연수교육을 지난 7월 8일부터 13일까지 강원도 홍천군 대명콘도에서 실시했다.

이번 연수교육은 “건협인 거듭나기 운동을 통한 의식개혁”을 대주제로 하여, 의식개혁을 위한 정신교육, 극기훈련을 위한 거듭나기 행군, 직원의 건강증진과 단합을 위한 볼링, 족구대회, 협회검사기술 향상을 위한 지부 자체 학술연구 결과 발표 및 지부간 정보교환 등 직원의 의식전환을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첫날 개회사를 통해 임한중 회장은 『대내외적으로 직면한 과제들을 효과적으로 극복하면서 국민들의 보건으로 서비스에 대한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기 위해서

는 누구보다도 직원 여러분의 체적 사고와 실천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연수교육을 통해 더욱 열심히 일하는 자랑스러운 건협인, 일할 만한 직장, 믿을 만한 보건요리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또 성정웅 사무총장은 마지막 날 교육 강평을 통해, 『지난 1년 반동안 변화와 개혁을 통한 협회의 새로운 발전과 도약을 위해 주인의식, 친절과 봉사, 일일결산의 생활화 등에 주력해 좋은 결과를 얻었으나, 현대사회에 걸맞는 보건요리서비스기관으로서 더욱 확고히 자리하려면 보다 능동적인 자세로 의식개혁에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만족을 뛰어넘는 감동을 고객에게 줄 수 있는 기관이 되기 위해 의식개혁 실천, 인간

존중정신 함양, 300% 달성하는 직원, 항상 기본을 지키는 직원이 될 수 있도록 하자』고 다짐했다.

한편 교육 첫날 개회식에는 김진선 강원도 부지사가 참석해 건협의 연수교육 개최를 축하해 주었으며, 이어 “의식개혁”을 주제로 한 조선원 국제노동연구원장의 정신교육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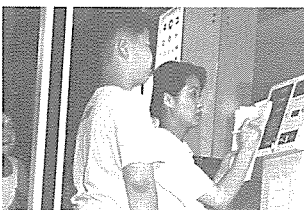
또 교육기간 동안에 있었던 볼링, 족구대회, 건협인의 밤 행사의 장기자랑에서는, 강원·본부(볼링), 본부·경기(족구), 강원·광주전남(장기자랑) 지부가 1, 2차 교육에서 각각 우승했으며, 충북지부 김석봉씨, 대전충남지부 박옥례씨와 경기지부 배기영씨, 서울지부 조미자씨가 볼링 개인전에서 역시 1, 2차 우승을 차지했다.(관련기사: 10쪽)

기생충분야 전문교육 실시

건강협회는 오는 8월 7일부터 10일까지 부경대학교 어병학과 기생충학 교실에서 기생충분야 전문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전문교육에서는 건강협회 각 시도지부 기생충검사 전문요원을 대상으로 피낭유충 검사실기교육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부산지부, 학생 비만도 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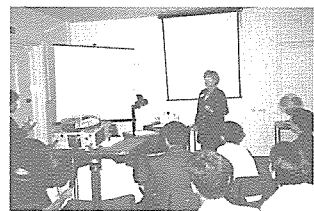


부산지부는 지난 6월 19일, 지부검사실에서 미남초등학교 1~6학년생 중 비만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비만도 검사를 실시했다.

이번 검사는 학생들에게 최근 늘어나고 있는 어린이 비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추후 건강관련 주요 통계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유럽 5개국 건강증진사업 사례 시찰

보건복지부 보건정책과 강기후 사무관, 노희원씨, 건강협회 김장석 홍보과장, 한세희 대리를 비롯한 전국 각 시도 보건관계자 33명은 지난 7월 2일부터 12



일까지 영국, 프랑스, 독일, 스위스, 네덜란드 등 유럽 5개국의 보건관련기관을 방문했다.

이번 연수는 국민건강증진법령의 제정목적에 부응할 수 있는 사업개발 및 체계적 시행을 위해 선진국의 보건관련기관을 방문하여 유럽 각국의 건강증진 정책 방향과 건강증진 프로그램 사례를 시찰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이다.